

지역 매아리

완주군자원봉사센터

신선한 제철과일 나눔 실천

(사)완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영석)는 1일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기원)로부터 후원받은 신선한 제철과일을 완주관내 6개소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여 훈훈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나눔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자 및 자원봉사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겨운 분위기속에서 수박45통, 바나나 8박스(약120만원상당) 등 신선한 제철과일을 직접 전달하며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자리가 되었다.

과일 상자를 전달받은 성요셉동산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날 충분한 비타민 섭취로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더욱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서 내 마음도 덩달아 기쁘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한편, 김영석 이사장은 "이번 제철 과일 나눔행사를 계기로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보건소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 간담회 개최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최근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정신응급상황 대응 및 안전한 사회망 구축을 위해 경찰서, 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내 정신의료기관등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신응급이란 '사고, 행동, 기분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 상태에 발현하거나 악화되어 환자 본인 혹은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내 정신응급 대응 상황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와 안전망 체계를 보장하고 유관기관의 협업 대응 현황과 정신응급상황 시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형희보건소장은 "최근 급증하는 정신과적인 사고를 미연 방지하기 위해 협업체계가 필요하며 주기적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의한 민원발생 및 응급사태에 적극 대처하여 안전한 김제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 대상의 사례관리 및 응급의료비 지원 등으로 치료개입을 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다양한 정신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완주군 두레농장에는 올해 초 6명의 경영실습 참여자 주 1회씩 영농멘토 집합교육과 공동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두레농장, 귀농인 학습터로 '탈바꿈'

완주군, 30~50대 구성 총 6명 실습 참여

완주군이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자립이 어려워진 인덕두레농장을 귀농인 학습터로 탈바꿈시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일 완주군에 따르면 두레농장에는 올해 초 6명의 경영실습 참여자를 모집해 주 1회씩 영농멘토 집합교육과 공동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3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참여자들이 세대 간 소통을 통해 장단점을 보완하며 서로 발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특히, 6명중 30대 청년이 3명이나

포함되면서 귀농의 주가 은퇴자로 생각되던 것 과 달리, 요즘은 그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고 있다.

실습작목으로는 고추, 안개꽃, 일 반채소로 참가자들 각자가 향후 영농계획에 따라 작목을 선택했다.

필요한 영농교육은 완주군농업기술센터에 자문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또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적인 영농방법과 PLS제도(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 준수를

병행해 소비촉진을 위한 안전성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완주군은 추후 이 사업을 확대해 시설하우스 농업을 희망하는 귀농인들이 실제로 시설을 임대해 원하는 작물을 직접 생산, 가공, 공동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재운 농업혁신과장은 "실습농장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이 농업수도 완주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중대형마트 47곳 지역 농산물 판매 인식

김제시, 농·축·특산물 적극 구매 협조 요청

김제지역 중대형마트 47곳이 지역 농산물 판매에 매우 인식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1일 김제원에농협공판장 및 김제시에 따르면 지역 내 대부분 중대형마트들이 지역 생산 농산물 구매를 외면하고 있는 등 지역농산물 판매부스 조차 구비하지도 않고 상품 진열

도 형식적인 운영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및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수입 농산물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농업인 및 유통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관내

농, 축, 특산물을 적극 구매 및 이용하도록 47곳 중대형마트에 협조를 요청했다.

원에농협 관계자는 "중대형 마트에서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등한시 하는 것은 김제시의 관심부족에서 비롯됐다."면서 "관내 마트에서 지역 농산물 구매를 외면하면 농민들은 많은 불류비를 부담하며 타지에서 판매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새마을회, 깨끗한 지역 만들기 캠페인 전개

김제시새마을회(회장 함길권) 회원 30여명은 1일 전통시장 사거리에서 시민과 상인들에게 쓰레기규격봉투 사용 및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등 환경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불법투기 금지, 쓰레기 분리수거 등

생활속에서 작은것부터 실천하지는 피켓, 전단지 등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했으며, 박준배 시장도 김제시 새마을회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깨끗한 김제만들기 환경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제시 새마을회는 생명살림운동,

평화나눔운동, 공경문화운동 전개로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지역 사회 만들기애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폐농약병 수거 등 자연순환 사업과 소하천 청소 등 환경 청결운동을, 일회용품 안쓰기 교육 등 생명살림운동을 통해 정결하고 아름다운 김제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 완료

김제시는 2019년도 본예산에 8600만원을 확보하여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에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여 642점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시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적측량 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지적측량의 기초인 지적기준점 7323점을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와 합동으로 2년(2017~2018년)동안 일제조사를 실시·완료한바 있다.

일제조사 결과 도로 확·포장,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각종 공사시행 등의 원인으로 지적기준점 2549점이 망실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적측량 빈도가 높으며 인근에 지적기준점이 존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지적측량기준점 642점을 재설치하여 기준점 망실로 인한 지적측량의 지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동일한 측량성공률 제 공할 수 있도록 기준점을 정비하고 정밀도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신규 설치한 지적기준점에 대해서는 매년 현황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향후 각종 공사 시공 업체나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제를 통해 지적기준점이 망실·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로 했으며, 지적기준점의 망실·훼손 발견 즉시 김제시청 민원지적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향후 지적측량기준점의 체계적인 관리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지적측량 성과를 제시해 토지경계등의 지적측량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조직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1차 교육을 진행했다.

김제시 친환경 신규농가 발굴 및 조직화 역량교육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1일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김제시 친환경농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조직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1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김제시도농협력사업단(단장 최승일)이 추진하고 있는 김제시 향토산업 '로컬푸드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3개월간 7회차까지 이어지는 농가대상 교육 프로그램 램으로, 교육시작하는 당일까지도 신청 문의가 쇄도할 정도로 농가들의 참여 열의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친환경농업과 로컬푸드의 개념을 시작으로 김제시 푸드플랜 정책 등을 농가들이 이해하고, 효과적인 정책추진 방법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그 의미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교육은 로컬푸드 선진 사례, PLS 대응 천연농약기술, 친환경 해충방제 기술 등으로 농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구

성되었고, 5회 이상 교육에 참석한 경우 교육 수료증을 발급, 수료자는 김제시 로컬푸드 출하 자격을 부여 받게 되어 그 호응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금년 하반기에는 금구면 일원에 신규 로컬푸드 직매장과 물류센터가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농산물을 집결, 유통 여건 등을 개선하여 대형 유통매장, 공공급식, 학교급식 등으로 적극적인 판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김제시에서는 농가 조직화 확대 및 기획생산 등으로 더 많은 지역의 중소농, 여성농, 고령농 등의 판매 기회를 확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로컬푸드 시스템은 출하농가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앞으로 남은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로컬푸드 생산 기반을 견고히 다져주길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Advertisement for energy-saving campaigns with a list of 4 tips: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Includes a graphic of hands holding a globe and a photo of a tree.